

곡성군 소멸·인구감소 대응 역량 집중

2023년 역점시책 업무계획 보고회 인구감소 대책 행복지표 개발 용역 청년 지원·체류형 생태 관광 도모

곡성군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균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최근 민선8기 군정 역점시책 성공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개발지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곡성지역만의 행복정책을 만들 어갈 계획이다.

우선 청년들이 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사업' '리스타운 고도화 사업' '체류형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1928 조성사업'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월세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곡성형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지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커뮤니티 지원' '곡성출신 청년 정착금 지원(은어의 귀환 프로젝트)' '기업 면접비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한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 '섬진강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항강생태레저 기반구축사업' '가정역권 야간 관광지 조성사업' '정치역별 특화개발사업'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자원 조성사업'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 등을 통해 체류형 생태힐링 관광을 도모한다. 농업분야는 고부가가치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가루쌀 생산 단지 조성사업',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복지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통합센터 운영과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 노인 무류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도어락 안심장비 지원', '치매진단 원격서비스'를 시행한다. 출산장려금도 첫째아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청년이 사라지고 노인인구가 급증해 인구소멸이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며 "청년이 곡성으로 돌아오고 떠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작업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올 공공일자리 144개 늘려 제공

군비 6억6800만원 추가 편성

장성군이 고령자와 취업취약 주민에게 일자리를 확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장성군은 올해 6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17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익형 일자리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군비 6억6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일자리 144개를 늘렸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공익형은 경로당 운영 지원, 학교급식 도우미 등의 분야에서 일한다.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투입된다. 시장형은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장성역 앞 시골할머니장에서 판매한다. 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진다. 공익형 참여자는 월 30시간 27만원, 사회서비

스형은 월 60시간 59만원, 시장형은 월 30시간 29만원을 받는다. 장성군은 공익형, 시장형 참여자의 활동일수와 수당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업취약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성호 관광지 개선을 비롯해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업무 지원, 황룡강 초화류단지 관리, 꽃묘 생산-꽃동산 조성, 공공체육시설 관광지 조성 사업 등 18개 사업에 총 65명을 선발한다. 주 20시간 근무에 시급 9620원을 적용하며 교통비-간식비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일자리 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며, 18세 이상 장성군민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대한민국 주목받은 광양 한옥 재생 문화공간 '인서리공원'

문화부 'K-공감' 책자 소개 "광양의 숨겨진 가치 발견"

광양시가 쇠락한 한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시킨 '인서리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3쪽 분량으로 소개됐다. 인서리공원 14채의 한옥은 각각 카페 'Aat', 예술전시공간 '반창고', '예담창고', '아트리움', 옛이야기를 담은 스테이 '다경당', '해경당', '여린의 집' 등으로 변신해 방문객을 맞고 있다. 아트프린트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앤에디션', 판화체험관 등도 갖 태어난 문화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낡고 오래된 집이 아티스트 '갑빠오'를 만나 작가의 집으로 꾸며지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은 미술관으로 변모한 모습은 예술의 저력을 보여준다. 창고를 개조한 전시공간 '반창고'에서는 김경화 작가의 '운기를 전하는 풍경'을 첫 전시로 선보이면서 재생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의



광양시 인서리공원의 14채 한옥 중 하나인 전시공간 '반창고'에서 김경화 작가의 '운기를 전하는 풍경'전이 열리고 있다. <광양시 제공>

지를 살리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불교기록화거리 등과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보고, 맛보고,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여행 동선을 완성해 준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인서리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쉼터이자 예술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문화공간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오래된 골목을 거닐고 오래 머물며 광양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나주시, 소규모 현안사업 222건 조기 착수

15명 자체설계단 구성 실시설계비용 3억원 절감

나주시가 기술직 공무원 자체 설계단을 통해 2023년도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실시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예산도 절감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50여일 간 지자체 설계단을 구성·운영

하며 110억원 규모 소규모 현안사업 222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자체설계단은 '토목', '농업기반', '도로관리' 3개 반에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약 3억원의 실시설계비용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 분야(예산)는 마을 안길 및 진입로 86건(38억), 도로 정비 22건(28억), 농로 포장·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 114건(44억)으로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농번기 이전인 6월까지 집행·준공할

계획이다. 설계단은 실시설계 첫 단계인 현장조사 때부터 시공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을 이장, 주민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호평을 얻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통한 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 영농 편의 향상은 물론 예산 신속집행에 따른 건설 경기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요자 중심의 자체 실시설계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 예산을 절감한 기술직 공무원의 열정과 적극행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공모

여수시가 '2030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3월31일까지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한다. 여수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소각시설 일 350t, 재활용선별시설 일 30t, 음식물처리시설(바이오가스화) 일 150t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기준은 부지면적 6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유치 희망도,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주거지와 거리, 최단 기간 건설 가능한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한다. 시는 모집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적의 입지 선정으로 생활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해남군, 출산 농가에 농가 도우미 지원

해남군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 도우미를 지원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일 기준 7만 6960원의 80%인 6만 1560원을 지원하게 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서 최대 70일간 농가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농가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 | | |
|----------------|----------------------------|--------------|-----------------------|
|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